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노숙인 환자 원내 사회사업기금 지원으로 사회복귀 희망을 얻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사회사업실에서는 교직원 급여이체 나눔으로 구성된 사회사업기금으로 지난 5월 응급실 행려환자로 등록된 노숙인 환자를 치료했다.

환자는 오랜 노숙생활로 건강보험과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으며 위장질환과 발목골절로 입원치료가 필요했다.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사업실에서는 사업기금을 후원하였으며 치료 후 퇴원하여 지난 7일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외래를 방문했다.

현재는 지역사회 종교기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15년간 말소되었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여 신분회생도 완료했다.

이날 병원을 찾은 환자는 “동국대학교병원의 지원으로 건강도 되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병원과 교직원 기부자에게 감사하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사회사업실에서는 교직원 급여이체 나눔으로 구성된 사업기금의 취지를 살려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교직원을 선발하여 환자 퇴원 시 후원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에 새 희망을 줄 수 있는 급여이체 1% 나눔에 참여하고 싶은 교직원은 사회사업실로(☎8360, 8361)로 전화하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02 피부과 색소 레이저 장비 트라이빔 K 도입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피부과는 표피 병변 시술 및 레이저 토닝 등의 색소 레이저 장비인 트라이빔 K를 도입했다.

트라이빔 K는 오타모반, 문신, 기미, 등의 진피 병변, 잡티, 주근깨, 흑자, 밀크반점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기기이다. 동종 기기들이 10Hz까지의 시술이 가능한 데 반해서, 트라이빔K는 20Hz의 성능을 낼 수 있어 레이저 토닝 시에 빠르면서도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다.

시술도 역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분획적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특수 광학 기술을 적용하여 핸드피스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빔 퀄리티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트라이빔K의 우수한 성능과 다양한 기능은 색소 치료 연구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본원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미용 치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03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약학대학생 방문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국 약학대학 학생 25명은 7월 13일 본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7월 9일부터 18일까지 동국대 일산캠퍼스에서 아시아 태평양지부 심포지엄인 ‘APPS(Asia Pacific Pharmaceutical Students Symposium) 2016 KOREA’ 개최 참가 차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학생들에게 양·한방 약제팀 및 VIP병동, 한방병동 등 병원의 여러 시설들을 안내했으며, 방문 부서마다 직원들의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에 관심을 보이며 진지한 모습으로 견학에 참여했다. 특히, 본원 양·한방 협진 시스템에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으며 약제팀과 한방 탕전실 등을 둘러보며 체계적인 약제 시스템에 감탄했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앞으로도 방문 견학 등 체험교육 제공을 통해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04 특수간호팀과 한방간호팀이 함께하는 ‘호프데이’ 행사

특수간호팀과 한방간호팀은 7월 1일 ‘함께하는 호프데이! 행복한 우리!’라는 주제로 ‘HOPE DAY’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특수, 한방간호팀 간호사들이 함께 모여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며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로 5회를 맞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간호사는 “감정노동이 많은 간호사들이 맘껏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격려해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전했으며, “타부서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